

반백년 만에 하회탈 귀향, 안동시민들 “얼~쑈”

하회탈·병산탈 전부와
기탁자료 포함 총 8종20점
1964년 고향 안동 떠난지
53년만에 영구히 돌아오다

“안동을 떠난지 반백년 만에 본향으로 되돌아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마디로 금의환향(錦衣還鄕)입니다. 마을은 물론 안동의 큰 경사입니다”

2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하회탈(국보 제121호) 및 병산탈을 환수해 온 유양근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은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양 기뻐했다.

이날 하회탈 및 병산탈 전부와 기탁자료 7점을 포함해 총 8종 20점이 안동으로 영구히 돌아왔다. 지난 1964년 고향 안동을 떠난지 꼭 53년 만이다.

하회탈 및 병산탈은 전날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상태확인을 거쳐 특수포장된 뒤 이날 오전 10시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오후 1시 20분께 유물을 싣고 마을에 도착한 5톤 트럭은 마을안길을 따라 충효당까지 10여분간 운행하며, 50여년 만의 귀향을 자축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하회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느닷없는 ‘국보 귀향’ 소식에 반기움을 표하며, 귀향행사를 지켜봤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관 앞에서 고유제를 올린 하회탈 등은 2시 50분께 안동시립민속박물관으로 옮겨져 박물관 수장고에 영구히 모셔졌다.

안동시립박물관에서 환수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고향을 떠나 국보로 지정된 뒤 돌아왔으니 금의환향이다”라며, 국보의 귀향을 일제히 반겼다.

하회탈 및 병산탈은 1930년대 후반부터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진가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1954년 류한상 전 안동문화원장이 아서 맥타가트 미국문화원 공보관에게 소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1958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양반·선비마당이 공연됐다. 당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1964년 2월 탈의 관리와 보존 차원에서 고향 하회마을을 떠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그 해 3월 국보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위탁 형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해 왔다.

국보로 지정된 탈의 일부는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 부분 전시나 해외 순회전시에서 간간히 모습을 드러냈다.

안동에는 1997년 제1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당시에 3점, 2003년 안동대학교박물관 특별전에서 5점(각시, 양반, 선비 등)이 내려온 바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주민들의 하회탈 환수 요구가 간헐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보관시설을 먼저 만들라’는 통보만 받았다.

1964년 8월 21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는 ‘안동 하회동에 보존각 설치 완료된 후 본 고장으로 이관 보존토록 한다’는 조항이 기록돼 있다.



27일 하회탈(국보 제121호) 및 병산탈이 고향을 떠난지 53년 만에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 도착했다. 하회탈 및 병산탈을 싣은 5톤 트럭이 하회마을 안길을 따라 충효당까지 이동하고 있다.

1972년 12월 하회마을에 징비록(국보 제132호)과 서애유물(보물 제460호)을 보존하기 위해 영모각을 준공하면서도 하회탈을 마을로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환수 요구가 있었다.

2003년 안동대학교 특별전 이후에도 환수 운동이 벌어졌지만 또다시 보존과 관리 문제 등으로 환수되지 않았다.

작년에는 두 차례의 실사를 거쳐 안동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한 ‘국보, 하회탈’ 특별전에 하회탈 및 병산탈 모두가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안동시는 올들어 지난 1월부터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과 기탁자료 전체를 환수하기 위해 하회마을 및 병산마을 주민과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안동민속박물관에서는 지난 6월부터 하회탈의 보존환경 조성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의 협조 아래 수장고 보존환경 컨설팅을 실시했다.

안동민속박물관의 목재문화재 보관전용 수장고 내 환습시설과 화재예방 설비 점검은 물론 조습패널과 국보 제121호가 격납될 밀폐장 설치 등 수장시설 및 보관시설의 최적화를 완료했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날 고향 만

동에 영구히 되돌아와 자리를 잡았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소유자인 하회·병산마을 주민과 협의를 통해 국보 제121호의 원본 이미지를 안동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내년에는 상설전시실 일부를 개편해 국보 제121호 원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하회탈과 관련된 연구와 문화재 3D스캔 등 고정밀 실측도 진행한다”며, “연구자료 확보 및 복제품을 제작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대구지역 공공기관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 ‘허술’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동 심장충격기 178대 실태조사
설치 위치 표시되지 않은 곳 30%



사진은 대구 반월당역에 설치된 자동 심장충격기의 모습이다.

대구지역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비치한 자동 심장충격기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자동

심장충격기 178대에 대해 관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설치 위치조차 표시되지 않은 곳이 30%에 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심장충격기의 충전상태가 불량이거나 교체 예정일을 표기하지 않은 곳이 21%(39곳)로 나타났다.

13곳은 점멸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환자 부착용 패드 이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유사시 사용법을 알려 줄 담당자 비상연락망과 사용자 매뉴얼 등을 비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비상연락망이 없는 곳은 58곳에 달했고 안내 책자가 없는 곳도 16곳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점검 및 관리서류가 없는 곳이 27.5%로 집계됐다.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자동 심장충격기가 방치되고 있다는 게 안실련 측의 설명이다.

김중진 안실련 사무총장은 “점검 결과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있는 자동 심장충격기 상당수의 관리 상태가 허술했다”며, “관리인식 부족에 대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하 기자

경북도, 4차산업혁명 대응 7대 프로젝트 내놔

신성장동력기반 확보,
스마트 혁신생태계 조성,
미래 사회변화 대응



경북도,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들이 '4차 산업혁명 경북어젠다 보고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가 27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밝혔다.

도는 이날 안동그랜드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경북어젠다 보고회'를 가지고 7개 핵심과제,

비전과 전략,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 3대 전략으로 △스마트제조, 스마트 모빌리티(이동체), 첨단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 기반확보 △인공지능·빅데이터·SW 등 지능정보기반 구축과 중소·벤처 육성 등 스마트혁신 생태계 조성 △인재혁신, 스마트 사회 구현,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 구축 등 미래 사회변화 대응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7개 선도 프로젝트로 △중소제조업 전용 스마트팩토리 모델(IoT표준 플랫폼) 개발·보급 △인공지능 기반 첨단신소재 물성 예측 플랫폼 구축 △ 자율주행서플라이 연계 스마트 자동차부품 개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가속기 신약개발클러스터 연계) △지능형 에너지자립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 △ABC 지능화 프로젝트(AI+빅데이터+클라우드) 추진 △독일 프라이온호프, 영국 첨단제조기술연구소 등과의 인더스트리 4.0 글로벌 협력프로젝트 추진 등을 밝혔다.

‘중소제조업 전용 스마트팩토리 IoT플랫폼 개발·보급’은 스마트팩토리의 핵심인 데이터의 수집과 전 제조과정의 통합 관리, 유연생산을 위한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저비용·실속형 IoT 표준 플랫폼을 개발·보급하는 내용이다.

‘AI기반 첨단신소재 물성예측 플랫폼 구축’은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소재관련 연구기관에 분산돼 있는 소재물성 데이터를 공유하고 AI 물성예측 모델을 개발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자율주행서플라이 연계 스마트 자동차부품 개발’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을 앞당기고자 자율주행차 7대 핵심부품개발과 개발된 부품이 장착된 자율주행서플라이 실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은 가속기 활용 신약클러스터 조성하고 연계해 신약 유효물질 발굴부터 물질합성·디자인, 스크리닝 등의 과정에 AI를 적용해 개발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성용 기자

평창, 문화를 더하다.

평창문화올림픽이란?

- IOC, Cultural Olympiad Guide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개척국 및 전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칭합니다.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올림픽 관련 정보와 생생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블로그
blog.naver.com/2018cultureolympiad

페이스북
facebook.com/2018cultureolympiad

청소년! 대구에서 꿈을 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
2018년 1월 11일 접수

대구시는 '청소년! 대구에서 꿈을 품다'라는 주제로 2018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해, 지역 청소년의 창의인성 체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공모를 시행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대구에서 꿈을 품다'라는 주제로 내년 1월 5일부터 11일까지 5

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 분야는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①'진로·직업'분야,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②'문화·예술·역사'분야, 가족간 소통강화와 인성함양을 위한 ③'가족·인성·건강'분야,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④'모험·봉사'분야,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⑤'과학·환경' 분야를 추가 선정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은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는 첫 해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분야의 경험을 제공해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 결정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기 부

여의 계기가 되는 등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과 미래지향적 사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분야 공모 외에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특화프로그램 등 5개 지정 사업에 대한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시행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마을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사업으로, '18년에는 63개의 마을로 확대 추진해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색있는 프로그램 발굴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과 다양화가 청소년들의 풍부한 체험 기회 및 역량강화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건전한 놀이 및 체험 문화 확산으로 올바른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인성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 최희송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대구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청소년 기관 단체들이 참여해 우수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미래를 꿈꾸고 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재선에 강한 자신감 피력

차기 대통령선거 도전
의사도 밝혀 주목



권영진 대구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내년 6월 예정인 지방선거의 대구시장 후보자 공천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공천과 관련해 "하늘에서 푹 떨어진 후보는 없다. 대구 시민들이 시장을 선택하는데, 시민들도 상상하지 못할 인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며, "전략 공천으로 가게 되더라도 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또 "4년전 젊은 시장을 선택해준 시민의 뜻이 4년만 하고 그만두라는 건 아닐 것"이라며, "4년이라는 시간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제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고 달릴 시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특히 차기 대통령선거 도전 의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대구 시장은 적어도 대통령 도전할 수 있고 그 꿈을 갖지 않는 시장은 대구의 불행"이라며, "재선은 대선 도전이 의무라고 생각하며,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통합신공항은 남부권 경제물류 공항을 만드는 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며, "대구·경북의 질체결명의 과제이며, 공항 인프라 없이 성장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민간공항을 두고 공공항만 옹호하는 주장에 대해 그는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면 논의하고 논쟁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권 시장은 또 "통합신공항 건설은 굉장한 진도가 많이 나갔다"며, "통합신공항은 되도록 돼 있다. 긍정의 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

이상하 기자

대구지역 토양,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

20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116곳 우려 기준 훨씬 밑돌아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구·군과 함께 5월부터 11월까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어린이놀이시설지역 등 총 10개 지역의 116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전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교통관련시설 및 어린이놀

이시설지역 등 중점오염원 52개 지점,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16개 지점, 산업주변 주거지역 25개 지점, 사고·민원발생지역 2개 지점 등 총 10개 지역 116개 지점을 선정·조사했다.
조사항목은 토양오염원 및 토지이용 등을 감안, 오염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 즉, 토양산도 측정을 위한 수소이온농도와 납, 구리, 카드뮴 등 중금속을 포함한 총 10개 항목을 분석했다.
검사결과 시안(CN)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으며, 중금속 평균오염도는 카드뮴(Cd)이 1.54 mg/kg으로 우려기준의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4 mg/kg)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소이온농도는 평균 7.0으로 중성으로 나타났다며, 기타 모든 항목이 다소 검출됐지만 토양오염우려기준은 훨씬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김형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하 기자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내년 1월 개장

장애인·임산부전용주차구역,
56면으로 24시간 운영



27일 오후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준공과 더불어 동대구역 서면에 설치된 맞이주차장이 내년 1월 2일 유료개방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완료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준공과 더불어 동대구역 서면에 설치된 맞이주차장을 내년 1월 2일부터 유료개방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맞이 주차장은 주차면수 56면으로 경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등이 설치돼 있으며, 24시간 운영한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잠시 손님을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한 용도로 운영되며, 대구시는 향후 동대구역의 관문주차장 역할과 동대구역 인근 불법주차 방지, 교통수요관리 등 효율적인 교통소통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맞이주차장은 장기주차자를 방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1회 주차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주차요금은 1시간 이내 주차에는 최초 30분 1000원, 초과 10분당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3만원, 2시간 초과에는 5만원의 높은 요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관련 사항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1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해야 할 경우 인근 타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

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는 주차장 개장에 따라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버스정류장과 동대구역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동구청과 협업체 집중적인 순찰을 통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을 맡고 있는 대구시설공단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이용요금 안내현수막과 입간판 설치, 안내 리플릿 등을 제작하는 등 주차장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조성된 동대구역 맞이주차장만으로는 주변 불법 주차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관심을 두고 불법 주·정차문제 및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덕 기자

남주형 기자

달서구,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포상금 2000만원 받아

달서구는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9일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및 포상금 2천만원을 받았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업이란 그간 의학적 판단으로만 장애등급을 결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개인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3차 시범사업은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달서구가 2016년 2차 시범사업에 이어 연속 2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달서구는 장애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장애인서비스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충전사업, 야간시대 홀몸·위약가구 장애인을 위한 아

간순회서비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 훈련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에는 개인사례공모 분야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당신은 귀한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월성2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황의준, 복지플래너 김유란 공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19년 장애등급제가 전면 개편되지만, 달서구는 한발 앞서 장애인에게 등급에 상관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 대구공항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을 확장할 수 없어, 미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간 접근성이 높으면서 소음피해가 적은 곳에 건설하겠습니다.
- 인적·물적 교류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대구·경북의 거점공항으로 만들겠습니다.

☑ **통합신공항 부지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투명하게 결정됩니다.**

- 이전부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 이전지역에는 군 정병 및 가족 등 1만여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소비활동, 고용창출, 세수증대가 발생합니다.
- 또한, 주요 도시와의 교통인프라가 확충되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3,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시행됩니다.

☑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대역사가 이뤄집니다.**

- 대구도 공사로 대구·경북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 신공항 건설공사로 인한 경북의 경제적 파급효과(국방부) - 생산유발액 2조 2,899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조 5,889억원, 취업유발 51,784명
- 통합신공항으로 관광, 항공정비, 물류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현재부지는 주변지역과 함께 개발하여 대구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조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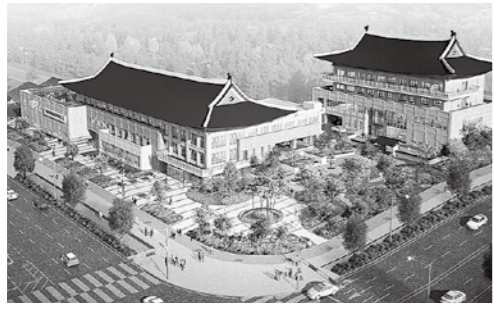
| 통합이전 절차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 지원계획 수립 →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 주민투표/유치신청 → 이전부지 선정 → 이전사업 시행 → 통합공항 개항



경북도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첫삽

2019년 5월 준공...경북도 양성평등 여성정책 핵심기관 역할



경북도는 27일 경북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공사 설계사,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공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두호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착수전략보고회를 개최, 안전한 공사추진을 다짐하고 도 단위 기관인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을 홍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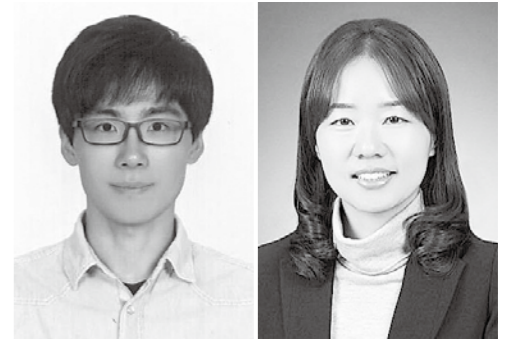
도청신도시 업무시설 13지구(예천군 호명면 금능리)에 건립하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201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착수했으며, 사업비 29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7886㎡,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한다. 주요시설로는 대강당, 다목적홀, 장난감도서관, 전시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의실 등이 있다.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도 단위 여성회관이 없어 지역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공간의 필요성과 도청 이전을 계기로 여성가족 정책연구, 인력개발, 교육문화, 인권보호 등 여성 활동을 종합지원 할 수 있는 복합시설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돼 건립하게 됐다.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도 단위 일·가정양립 관련 기관(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 광역새일자리

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여성정책개발과 고용평등 기능을 수행하고 도 단위 여성회관으로서의 교육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창업 보육지원, 유아놀이방 등 영·유아 보육지원기능까지 수행해 여성정책지원의 메카로 활용된다. 아울러 도청이전에 따른 여성정책 핵심기관 동반이전과 다양한 기능의 통합운영으로 여성 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군 여성회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지난 11.15 지진으로 방문객 급감과 각종 행사 취소 등 지진의 2차 피해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진현장에서 안전의식을 고취해 경북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의 내실 있는 공사추진을 다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MVP 공무원에 '윤성환·이정순' 선정

2017년 경북도 MVP 시책유공 공무원 선발



윤성환 이정순

동물방역과 윤성환 주무관과 산림자원개발원 이정순 연구사가 '2017년 경북도 MVP 공무원'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올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MVP 남·여 각 1명과 시책유공 공무원 8명 등 총 10명을 '2017년 시책유공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윤성환 주무관은 전국 유일의 조류인플루엔자(AI) 비발생 청정 경북을 시수한 공무원으로 '매우 빠르게, 매우 지나치게'라는 기치를 내건 꼼꼼하고 촘촘한 방역으로 경북의 가금농가 및 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림자원개발원 이정순 연구사는 새로운 임산소득원 발굴로 도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 받았다.

수년간 임산업 소재 연구개발에 매진해 올해 간 건강유료 '간뿔곰', 최 발효식초 음료 '침조'를 상표 등록·출원했다.

시책유공 공무원으로는 동해안발전정책과 권병석 사무관, 보건환경연구원 김미정 연구

사, 문화융성사업단 도남규 주무관, 창조경제과학과 이강학 사무관, 자연재난과 이성인 사무관, 소통협력담당관 이은정 주무관, 글로벌 통상협력과 임흥식 주무관, 정책기획관실 정책조사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017년은 도청이전 2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포항 지진, AI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해줘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특히 이번엔 선발된 시책유공 공무원들은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많이 선정된데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건설인의 새 도약 다짐...제4회 건설인상 시상

경북도 건설인상 시상 권혁찬 대표이사 등 5명 선정 이웃돕기 성금 3600만원 쾌척

경북도는 27일 포항 필로소호텔에서 지역 건설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4회 건설인기상 시상식 및 건설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포항에서 개최됐으며, 도내 건설관련 5개단체(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건설, 건축사회, 주택건설) 회원사 300여명이 참석, 건설인상 수상자를 축하하고 경북건설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건설인상은 지역발전의 공헌이 높은 건설인들을 발굴해 사기를 진작하고 올바른 건설산업 문화확산을 위해 시상하는 경북건설인 최고 영예의 상이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종합건설 부문에 권혁찬 삼진건설(주) 대표이사, 전문건설 부문에

이입괄 세종환경산업(주) 대표이사, 기계설비건설 부문에 김동수 ㈜세한 대표이사, 건축사 부문에 이재호 건축사사무소 공간대표, 주택건설부문에 허상호 삼도주택(주) 대표이사 선정됐다

한편, 이날 이웃돕기 성금으로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16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1000만원, 대한건축사회 경북도건축

사회가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건설산업 발전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라며, "지역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건설투자 수요 발굴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경북도, 삼국유사 목판사업... 대역사 마무리

디지털화 제작·보급 29일부터 인터넷 확인 가능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재창조 성공모델이 될 것



경북도가 '삼국유사 목판사업' 4년간의 대역사를 마무리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고대사 기초 사료인 삼국유사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전통 기록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삼국유사 목판사업은 지난해 조선중기본과 조선조기본 목판을 차례로 복원하고 오는 29일 경북도 교감본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4년간의 역사(역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사업은 한국 고대사 연구의 필수 서적인 삼국유사의 선본을 저본으로 삼아 서지적 의미의 원형을 상징하는 목판으로 판각해 이를 인쇄, 제책함으로써 다양한 판본에 대한 완벽한 정리를 하고, 이를 정본화 작업의 기초로 활용해 한국 고대사 연구에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도는 목판문화재의 관리정책 수립과 한국 전통목판 판각기술의 재현에 도움이 되도록 판각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판각 과정의 세부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도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조선중기본, 조선조기본 2종을 차례로 복각해 인쇄(印出)한 후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 등 전통방식으로 책을 만들었다. 올해는 삼국유사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삼국유사 판각과정

의 검색과 판본 비교가 가능하다. 도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으로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북도는 이날 오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삼국유사 목판사업 자문위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국유사 목판사업(조·중기본) 완료 및 경북도 교감본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다.

우병용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삼국유사 목판사업은 물질만능, 정보산업 물결 속 인문정신 상실의 시대에 경북도가 이뤄낸 역사물로서 후대에 역사복원의 산물로 평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경북도, 내년 마늘·양파 수급 선제대응 나서

생산안정제 3만3천톤 계약물량 확보 주산지 중심으로 모니터링 재배지도 강화로 적정생산 유도

경북도가 내년도 마늘과 양파 수급안정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농업연구기관과 도 자체 조사에서 내년도 마늘과 양파가 과잉생산 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도는 생산안정제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주산지 위주로 모니터링과 적정재배 지

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내년도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을 올해보다 6%, 9-14% 많은 2만6000ha와 2만2000ha로 내다봤고 도에서 자체 실시한 2018년산 마늘·양파 재배(정식) 면적 조사결과에서는 올해보다 15%-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마늘의 경우 농가 수취가격 상승 기대 심리로 남부권에서 대서중 중심으로 면적이 증가한 반면, 양파는 중만생종 수확기 가격상승이 재배면적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도는 농협을 통해 2018년도 마늘·양파 생산안정제사업을 위해 총 3만3159톤을 확보하고 올해 12월말까지 농가계약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품목별 신청량을 보면 마늘은 2017년(1만 3712톤)보다 1만207톤 많은 2만3919톤을, 양파는 2017년(5900톤)보다 3340톤 많은 9240톤이 신청됐다.

관계자는 마늘의 경우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보다 신청물량이 초과됐으나 도 차원의 강력한 건의로 신청물량이 대부분 사업계획에 반영된 상태라면서 수급조절을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어졌 셈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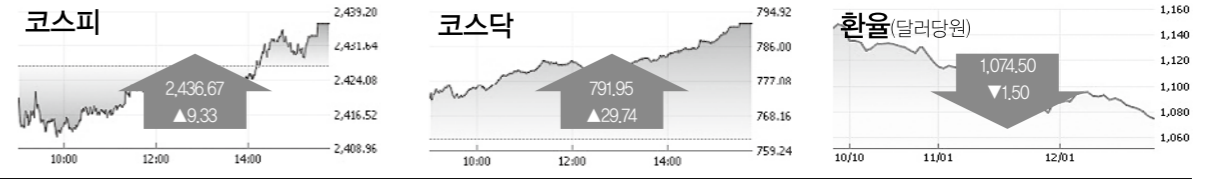
경북도는 3개 품목(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김용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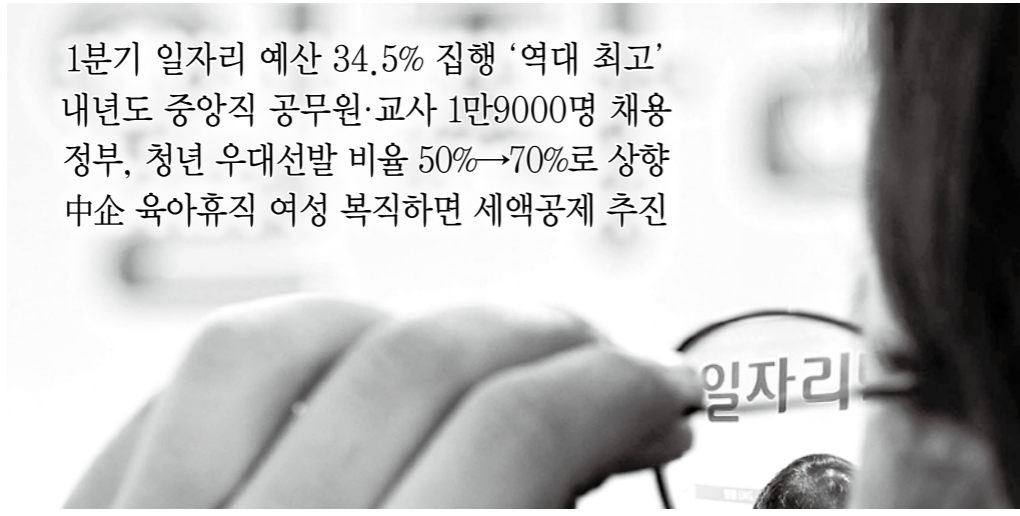
곡선의 미와 전통의 멋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집!
나무, 흙, 돌... 자연 친화적인 집!
이제 **경북형 한옥**에서 함께 하세요!!

“경북형 한옥!”

1천1천원 더 채우하기



공공기관 내년 상반기 1만2천명 채용... 청년고용 '총력'



1분기 일자리 예산 34.5% 집행 '역대 최고'
내년도 중앙직 공무원·교사 1만9000명 채용
정부, 청년 우대선발 비율 50%→70%로 상향
중소 육아휴직 여성 복직하면 세액공제 추진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역량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일자리 예산 집행률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한편, 공공기관과 정부 직접 일자리를 청년 고용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아울러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

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와 유사한 32만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률이 소폭 개선(66.6%→67.3%)되지만, '베이비붐 에코 세대'의 취업시장 진입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층 고용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재정당국은 내년 상반기에만 58% 이

상의 재정을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1분기 역대 최고수준인 34.5%를 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동참하기로 했다.

내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이 2만3000명 가운데 53%를 상반기에 채용한다. 올해 45%와 비교해 큰폭으로 상향된 수치로, 약 1만2000명의 인원이 상반기 중 채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활성화 유도를 한다. 명예퇴직의 빈 자리를 신규채용으로 채워주겠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도 약 1300명 확대한다. 국가 일반직 채용 규모는 6023명에서 6050명으로, 교원 채용은 1만1965명에서 1만3254명으로 늘린다. 또한 선발 소요기간을 1~2개월 단축하고, 기존에 선발된 공무원의 조기발령을 통해 고용률을 끌어올린다.

2만6000명 규모의 청년(34세 이하) 적합 일자리사업은 청년 우대 선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청년 인력 수요가 높은 기타 직접일자리 경우 청년 20%를 우대 선발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타 직접일자리 사업은 약 10개로 채용규모가 4만5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도 적극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1대1 매칭 전담 매니저를 통해 1000명의 청년 구직자에게 3년간 무제한 취업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층에게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에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올해 도입된 중소기업 2+1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3명을 고용하면, 정부가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3명까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정원의 최대 3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명을 고용한 경우에는 1.3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일시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최저임금 120% 이상 임금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30만원을 지원하는데,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의 110%로 낮

추고, 지원금액은 6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신규인력 채용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이천우 기재부 차관보는 "(일자리)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의 질이다"며 "임금격차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질에도 역점을 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기금을 현재 7300억원 수준에서 추가로 조성하고, 내년 1월 중 약속 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하위 협력사에게도 의무적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채당금 수령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채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 정부는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추진한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에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뉴스

대구 염색산단, '친환경 공단'으로 변신

대기 오염물질 저감설비 650억원 들여 건립 완료

대구시 서구 염색산업단지(산단)가 대기 오염물질 저감설비 건립을 완료하면서 친환경 산단으로 거듭난다.

27일 대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공단에서 열병합발전소 환경설비 준공식이 열린다.

설비 공사는 산단 내 125개 업체가 2014년 5월부터 총 650억 원의 비용을 들여 황 성분 제거설비, 질소 성분 제거 설비 등을 건립했다.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환경규제가 질소산화물 250ppm, 황산화물 250ppm, 먼지 40ppm 이하 기준에서 질소산화물 80ppm, 황산화물 80ppm, 먼지 40ppm 이하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오는 2018년부터는 염색산단 내 열병합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36ppm, 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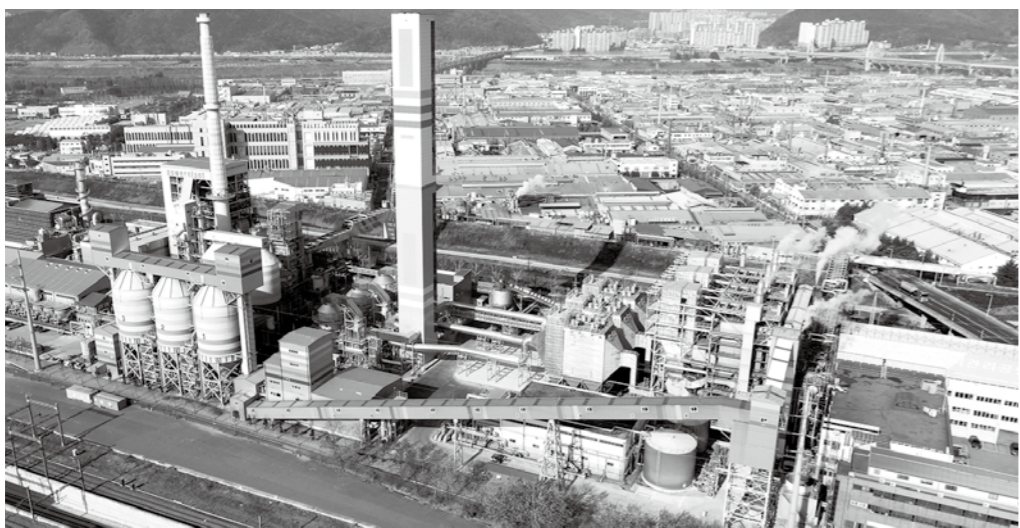
화물 14ppm, 먼지 6ppm 등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공단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부산과 구미의 배출 허용기준보다도 낮다.

또한 공단 측은 지난 2월 악취나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유연탄 6000t을 저장할 수 있는 연료 저장고에 밀폐시켰다.

유연탄 저장고가 밀폐공간인 '사일로'로 지어지면서 유연탄이 외부와 차단된 채 컨베이어벨트로 이동해 분진과 악취 관련 민원도 7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은 이런 노력을 통해 그동안 악취와 분진으로 사용하지 못한 저렴한 연료 사용이 가능해 발전소와 입주 업체는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염색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설비가 들어서게 되면 '친환경 공단'으로 이미지를 탈바꿈해 섬유업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업체들도 환경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면서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염색산단 신설된 설비의 전경

티웨이항공, 새해 맞아 새 기내식 선보여

치맥세트·닭볶음탕밥 출시

티웨이항공은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사진 주문 기내식 메뉴를 출시했다.

27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이는 첫 번째 메뉴는 치킨과 캔맥주가 더해진 '치맥세트'다. 치맥세트는 순살 후라이드치킨과 순살 양념치킨 등 두 가지의 종류 중 원하는 맛을 선택할 수 있다.

간장소스로 맛을 낸 '닭볶음탕밥'도 새롭게 출시된다. 또한 가벼운 한끼를 원하는 승객을 위한 '닭가슴살샐러드&소프트콜', 신선한 채소와 불고기로 가득 채운 '불고기피자' 등 다양한 승객들의 기호와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특히 티웨이항공은 새해를 맞아 인기가 높은 사진 주문 기내식 메뉴의 가격도 낮췄다. '불고기덮밥'과 '굴소스해물덮밥', '더블함박스

테이크' 등의 가격을 기존 1만5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전복죽도 1만원에서 9000원으로 할인해 제공한다.

새로운 메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티웨이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예약센터(1688-8686)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의 사진 주문 기내식은 출발 4일 전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김진희 기자



대구지역 롯데百貨,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

내년 농축수산물 10만원 가능 판매물량 확대·법인고객 확보

크리스마스 특수를 보낸 대구지역 백화점들이 2018년 설(2월16일)이 약 50일을 앞두고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돌입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역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은 27일부터 1월 21일까지 26일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사전 예약판매 행사에서는 지난해보다 10여 품목이 늘어난 210여 개 품목을 최대 7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 예약판매 행사에서는 10만원 이하의 실속형 상품 비중을 늘렸다. 10만원 이하 상품의 품목 수를 올해 93개 품목에서 이번 설에 136개 품목으로 올 해보다 46% 이상 늘렸다.

특히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품목 수를 올해 30개 품목에서 올해 57개 품목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대표 상품은 '한우 보신세트'가 9만 8000원,

'리치팜너트 훈넷 패키지 수프림'세트가 8만 5600원, '명가 오가닉 유기 수산 김 세트' 5만원, '모슬포 육포·은갈치 특선세트'가 10만원 원이다.

사전 예약판매로 구매하면 △축산 10~20% △수산물 10~20% △가공식품·생필품 10~30% △와인 40~70% △건강식품 30~70%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한호 롯데백화점 대구점 식품 플장은 "명

절 선물세트를 미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약판매 행사 기간의 선물세트 수요도 매년 늘고 있다며, 김영란법 개정으로 인해 특히 올해 설에는 1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추석행사에 완판을 기록한 10만원 이하 국내산 선물세트 물량을 늘려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화성산업, 고덕강일공공 7단지 아파트 수주

공사비 951억원 총1025세대 구성

화성산업은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파트 건설공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7BL에 조성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74일이 소요되며 공사비는 총 951억원이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7단지는 대지면적 37,598㎡, 연면적 109,875.77㎡, 지하2층

~지상20층 2개동으로 국민임대(전용면적 29/39/49㎡) 619세대와 장기전세(전용면적 59/74/84㎡) 406세대 총 1,025세대로 구성돼 있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는 1,2,3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된 강일IC와 상일IC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의 강일 1,2지구 및 미사강변도시와 함께 서울동부권의 주거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주택지구이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올림픽대로, 강일IC,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이용 및 용마산터널과 연결되는 구리암사대로, 강일~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시내외곽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이번 계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종합평가 낙찰제 방식을 적용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했으며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시공능력, 하도급 적정성, 시공실적, 기술능력, 사회적 신인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내년도 SOC물량 감소로 인한 예산감소로 인해 연내 일괄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급히 화성이 증평제가 적용된 이번 사업을 수주 및 계약하게 돼 다시 한번 공사수행 능력과 기술력을 입증하게 됐으며 역외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지역협력업체와 함께 동반성장을 나갈 것이며 고덕강일지구를 빛내는 최고의 품질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라 밝혔다.

이상하 기자

도공, 광고 방음터널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500t 이상화탄소 등 감소 환경보호·국토 효율도 좋아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길이 1.3km)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끝내고 다음 달 초부터 발전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고속도로 방음터널 상부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은 첫 사례이다.

이 시설은 2.6MW 규모로 총 사업비 44억원이 들어 1000여 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3.5GWh/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약 1500톤의 이산화탄소와 5t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도로공사에는 2012년 12월 남해고속도로 폐도 5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처음 선보인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 IC 녹지대, 성토법면 등

으로 설치장소를 확대했다.

현재 80t 4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말까지 모두 149개소 81M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81MW는 충남 논산시 인구(12만명)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생산(약 106GWh)이 가능한 규모이다.

이강호 도로공사 사업개발처장은 "앞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부흥을 위해 2025년까지 고속도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력량 만큼 고속도로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올해 14건 공모사업 선정·60건 기관표창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55억원 국도비 확보
안전시책 등 32건 표창
경북 제1도시 위상 굳혀

포항시는 올 한 해 14건의 공모사업 선정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평가에서 21건, 경상북도 평가에서 32건, 민간단체 평가에서 7건 등 총 60차례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대·내외적으로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도교통부)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연안바다목장조성(해양수산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건의 공모사업 선정돼 총 45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실속 있는 포항시정이 또 한 번 눈길을 모았다.

이번 기관표창 가운데, 감사원 '차제감사활동평가'(최고등급 A)와 한국메니페스토실천

본부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민선6기 3년 연속 수상과 더불어 국도교통부 지속가능교통도시평가(포상금 1억원), 경상북도 시·군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시민공감대학에 친환경 녹색도시로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린웨이(Green way)사업은 지난해 2개 기관표창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지난 7일 포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 분야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1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는 지진피해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업 분야-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 △감사 분야-국민민원의 날 으뜸즈만 부문 국무총리상, 자율

적내부통제 행정안전부장관상 △상생 분야-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대상 △식품 분야-우수농업지구 평가 대상 △보건·환경·안전 분야-식중독 예방관리·배출업소 환경관리·재난관리평가 우수 △교육 분야-진료교육 우수기관 표창 수상 등 지난 한해 알찬 성과를 거뒀다.

경상북도 도내평가에서도 도민안전시책, 음식문화개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등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32건의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받아 경북 제1의 도시로의 위상을 확인했다.

아울러, 외부평가에서도 4차 산업혁명 과워코리아대전 지자체 경영대상, 한국산업대상 공공서비스부문 대상, 예산효율화 사례심사평가 대상, 대한민국 스마트건축도시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물관리 최우수기관상, 대한민국 건강도시 대상 등 전국 최고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도시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강덕 시장은 "14개의 공모사업 선정과 60건의 기관표창 수상은 올 한해 포항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이자 자랑스러운 성적표"라며 "2018년은 지진피해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재

건의 희망을, 시민들에게 내일의 꿈을 줄 수 있는 다시 뛰는 포항! 지속발전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에 더욱 가속도를 높여나 가겠다"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포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협약

이강덕 시장, 이재민 목소리 청취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결실 맺어

11.15. 지진피해 현장에서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피해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포항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포항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기문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장, 다기주주택 건물주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지진피해 주택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 및 원활한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 발생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과 똑같은 피해 당사자로 갑작스럽게 큰 돈을 내줘야하는 임대인의 처지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건의를 펼쳐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



환 보증 특례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고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포항시의 협조를 받아 26일부터 흥해읍사무소 2층에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및 전화 상담실(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 이재민의 입장

에서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협약처럼 현장에서 이재민들의 불편을 직접 듣고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재민들이 조속히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경주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성황리 열려

23개 읍면동 500여명 참석
지역사회 발전 봉사자 격려

경주시새마을회는 지난 26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2017 경주시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가졌다.

이번 새마을지도자 대회에는 주요내빈을 비롯한 23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새마을운동 읍·면·동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2017년 주요실적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 등 새마을지도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새마을운동 읍·면·동별 종합평가에서는 월성동이 최우수로, 황남동과 강동면이 우

수, 중부동과 성간동, 황오동이 장려도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최양식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지도력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대회가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



포항시, 전국 최초 '자투리시간 거래소' 운영

단기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포항시가 내년 1월 2일부터 '자투리시간 거래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포항시는 일자리추진단 사무실에 시스템을 구축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자투리시간 거래소는 일자리 창출 100대 실천과제 중 대표적인 시책 과제로 추진해온 국내 최초의 지역 특화 일자리 플랫폼으로 주부, 청년, 노인층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직자를 공공기관, 기업, 농촌지역, 식당 등에 매칭하는 구인·구직 시스템이다.

포항시는 가정주부, 은퇴자, 아르바이트 희망자 등 단시간의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농촌일손

편의점, 식당 등 수요처의 상황을 확인 후 실시간으로 매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업종별로 구직자의 수요를 조사해 직업교육 및 자격증반, 온라인 강의를 지원해 등 전문적인 인력 형성을 위해 연중 상시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아울러 전문 직업 상담사가 일자리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구인·구직자 취업 알선 및 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투리시간 거래소는 구직자 및 구인자가 직접 본인의 정보를 자투리시간 거래소 홈페이지(jaturi.pohang.go.kr)에 신청하거나 대표전화(273-1919)로 신청, 접수해 상담하는 오프라인 방법으로 운영된다. 강동진 기자

농협 경주시지부, 30년된 건물 전면 개·보수

농협 경주시지부는 지은지 30년이 된 지지부 건물을 전면 개·보수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지난 1988년 경주시 노동동 42번지였다 건평 120평에 3층 콘크리트 철구조물로 지어진 농협지부 건물은 낡고 오래된데다 지난해 발생한 9.12 경주지진으로 건물 일부 외벽이 손상돼 누수현상과 함께 벽면에 금이 가고

내·외장 타일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런데다 영업장 내부도 고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30여년의 구조라서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농협은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 3월부터 6개월에 걸친 전면 개·보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기간 중에는 현재 영업장에서 반경

50m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 임시 영업장을 마련 이용객들에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연간 여신 4000억 원, 수신 6000억 원 규모의 경주시지부는 농협중앙회 경북도 본부 산하 22개 시·군지부 중 상위그룹에 속하는 점포에 해당되고 있다.

한편, 불황에 허덕이는 지역건설관련 업체들은 모처럼 희소식에 쾌재를 불렀으나 각 금융기관들은 본점에서 지정하는 통일된 기업 이미지 통합(C-I)지침에 따라 지역에서는 하청마저도 금지된 사실이 알려지자 큰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다. 윤용찬 기자



경산 청도 영덕 울진 청송 영양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영덕군그린어머니회 홀몸노인 80가구에 전통고추장 전달



영덕군그린어머니회 21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홀몸노인 80가구에...

전통고추장은 지난 10월 복사꽃잔치에서 그린어머니회가 운영한...

영덕군그린어머니회 21추진협의회는 1996년 출범한 이후 20여년간 생태계 보존, 자연정화활동 등 다양한 환경활동을 펼쳐왔다.

김승권 기자

울진군, 농·산업기계 전문기술인력 배출



울진군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12월 13일부터 '농·산업기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은 수요가 가장 많았던 굴삭기, 지게차 교육을 희망한 7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김형성 기자

국정 최우선 과제 일자리 창출 '청도'가 나섰다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1만개 창출' 일자리대책 종합 5개년 계획 추진성과 점검

청도군은 지난 3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reis)를 통해 공시한 2017년 청도군 일자리창출 목표 2944개 중 10월말까지 2467개 일자리를 창출해 이미 목표 대비 84%의 달성 실적을 거양했고...

청도군이 2017년 한 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추진한 약 180여개의 일자리 창출사업 중,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노인케어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신화랑 공인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총 62명을 양성하고 이 중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한 노인케어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만 현재까지 약 20여명의 취업자를 배출했다.

또한, 사회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도 힘써 2017 경북도 고향사랑 크라우드펀딩대회에서 청도 청년예비사회적기업 온누리국악예술인협동조합이 도내 참가단체 28개 팀 중 최종 2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6월에는 경북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청도코미디 시장, 착한집짓기협동조합, 온누리국악예술인협동조합과 지원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청도군에는 지난 19일에 신규로 지정된 지역예비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청도군농민회(대표 박성기)와 지난해 말 지정된 착한집짓기협동조합, 온누리국악예술인협동조합까지 3개의 예비사회적기업과 (사)청도코미디 시장, 청도성수월마을영농조합법인, (협)남까지 3개의 사회적기업 등 총 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중이며, 청도군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며 나눔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 10월 26일 청도국민체육센



터 실내체육관에서는 청도군 최초로 일자리 창업 박람회를 개최해 풍각농공단지 입주업체, 개별업체 등 20여개 구인업체와 청장년 구직자,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산상공회의소,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와 관내 새마을직공장협의회, (사)풍각농공단지협의회, 청도상공인협의회 등 지역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면접 및 채용, 창업컨설팅,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한 취·창업 행사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농업분야 창업지원 컨설팅 제공등, 270여개의 공공일자리와 140여개의 민간일자리를 공개해 100여명이 상담을 받고 23명의 구직접수를 받아 신규 고용 창출과 구인·취업난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밖에도 청도군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청도시장이 선정돼, 지역에 걸맞은 특

성화 시장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지역경제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 결과 청도군은 지난 14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기관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70% 이상의 고용률을 매년 경신하고 있는 청도군은 앞으로도 국가적 고용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청도군은 노인과 청년, 구인기업과 구직자, 농민과 상민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생명고을,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입암면 애향청년회, 경로당에 사랑의 물품 전달

경로당 28개소 직접 방문 250만원 상당 물품 전달

영양군 입암면 애향청년회는 지난 26일 대한노인회 입암면 노인회 분회를 비롯한 입암면 관내 28개소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라면, 커피, 소면 등 250만원 상당의 사랑의 물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입암면 애향청년회는 올 초에도 웃놀이대회 행사 후 관내 경로당에 생활 필요 물품을 전달했으며 환경정비,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도맡아 입암면의 복지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지역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권윤동 애향청년회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



하는 애향청년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효선 입암면장은 "항상 주변 이웃을 돌보고 봉사하는 입암면 애향청년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입암면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청도상공인협의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청도군은 27일 청도상공인협의회로부터 청도군인재육성장학금 300만원을 기탁 받았다.

지난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전달에 이어 올해에도 인재육성장학금 기탁으로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용 기자

영덕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영덕군은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방식은 현금지급이나 사회보험료 상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원칙) △최저

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발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방문, 우편, 팩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인근 시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영덕군은 앞서 영덕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신청·접수를 전달하는 읍·면담당자 지정도 마친 상태다.

28일에는 경북도 주관으로 전체 업무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계획과 연계해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을 통한 홍보, 누리집, 페이스북 등 SNS 홍보, 현수막 게시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권 기자

청송군,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선정

청송군은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을 자체 선정해 인사 인센티브(표창, 시상 등)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군은 공직사회 내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용구 기자

Advertisement for Yeongdeok County featuring scenic views, a lighthouse, and text: '21세기 동해안시대 최고의 관광휴양지 盈德 Welcome to Yeongdeok'.

구미 김천
영천 고령
군위 성주
칠곡

김천시, 농업인대학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김천시는 지난 20일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전국 농업인대학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농업인대학 평가는 농촌진흥청이 전국 156개 시·군의 농업인대학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향상도, 교육과정 운영 등 서류심사와 더불어 각 도별로 선발된 9개 시·군 담당자들의 발표 점수를 종합해 선정된 것이다. 김천시농업인대학은 지역특화작목 위주의 과목개발과 단계별 수요자맞춤형 교육설계, 시기별 협업적응이 가능한 다양한 실습 교육, 자기주도 현장과제 학습 추진으로 전문기술인을 양성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농촌 증진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위군의회 박창석부위원장 경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군위군의회 박창석 부위원장이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2017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군 의회에 의하면 박창석 부의장은 남다른 열정과 평소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장자로 선정됐다.

칠곡군,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모범우수기관상 수상



칠곡군은 지난 21, 22일 이틀 간 경주에서 열린 '2017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성과대회'에서 도시사상인 모범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경북 22개 시·군에서 기존사업운영지역 석적읍은 2014년부터 4년간 진행했으며 2017년 신규지역으로 가산면 17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성과대회에는 시군 마을건강위원회, 자원단교수, 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이 기관 표창을 받았다. 칠곡군에서 가산면 조현경 건강부위원장도 주민주도형 건강새마을 사업의 올해 성과를 발표했다.

구미시,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 미래에너지 발굴 혼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친환경 에너지 확충으로 청정도시 조성, 미래에너지 발굴 에너지 정책 방향 확립

구미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과 친환경 에너지 확충 및 미래에너지 발굴을 위해 힘써 달려왔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중점으로 두고 43만 시민 모두가 고품질 에너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어느 도시 못지않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거듭났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구미시는 올해 43만 시민 모두가 에너지 복지에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농촌지역과 관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육성면 대원1리에 총 사업비 4억원을 들여 LPG배관망 보급을 마무리했다.

기존 세대별로 사용하던 가스시설을 마을단위로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했고,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안전도 높이지 않았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및 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총 사업비 5억원 중 국비 70%를 확보해 저소득층 443세대, 사회복지시설 37개소의 노후 조명기구를 친환경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 했고, 이로 인해 실내 조명환경 개선은 도모하고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에 연간 6만8000원 절감 가능해 가계경제 개선에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사용의 기본은 '안전'

구미시는 가스, 전기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사용 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세대, 노인세대 등 1550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을 완료했으며,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은 1만원으로 최소화해 설비 보급 확충에 힘썼다.

또한, 전기설비의 안전강화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중부지사과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추석연휴를 대비한 다중이용시설과 동절기 취약세대의 점검을 중점 강화함으로써 전기사고 예방에 기여했고, 6월에는 봉곡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구미시 관계자를 비롯해 구미소방서, 한국수력기공공사, 주민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구미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확충으로 청정도시 조성

최근 정부에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구미시에서도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가장단위 청정에너지 보급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친환경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아파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여원을 투입해 154가구에 설치했으며, 2018년에도 도비를 포함해 2억원을 편성하는 등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반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올해 31개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원을 보급했으며, 태양광 3kW 기준 가구당 연간 75만원의 요금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을단위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보급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충과 동시에 농촌 일손줄이기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저소득층 LED 교체, 전기안전설비 합동점검, 아파트 미니태양광

구미시는 미래에너지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합리적인 에너지의 소비가 중요시 됐고, 지난해 수요자원거래시장 참여 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미시는 2017년 다양한 에너지 정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탕으로 2018년에도 에너지 복지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리고 구미시 성장동력의 밑받침이 될 에너지 신사업 구상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윤진 구미시장은 "에너지는 생활·산업·경제 전반의 초석이자 성장 기반으로 다양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 사업을 통해 구미시가 에너지 분야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 대규모 정기인사 단행

승진 71명 등 총 234명

영천시가 27일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 대상은 총 234명이다. 구체적으로 승진(의결)임용 71명, 부서장 전보 14명, 팀장 및 6급이하 전보 122명, 복직 5명, 전입 7명, 전출 3명, 신규임용 12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송동열 문화체육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해 안전지역개발과장으로, 장해규 고령면장이 미래전략사업국장으로, 허상근 농축산과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5급 사무관에는 손진열 인재양성과장(직무대

리)이 인재양성과장 직무대리로, 김현식 회계정보과 지출담당이 외환사무국전문위원 직무대리로, 최상진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이 고령면장 직무대리로, 조한웅 총무과 비서과 중앙동장 직무대리로, 이상재 도시계획과 지역개발담당이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김병수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이 농촌지도과장 직무대리로 승진 의결됐다.

이제껏 안전지역개발과장과 한병호 미래전략사업국장이 명예 퇴직하고 서기관인 김선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중 농촌지도과장, 최영균 화산면장, 손창의 대장면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고령군, 賞賞이 현실이 된다



한국관광의 별, 투자유치 대상 등 올해 연말에 40여개 분야 수상

고령군이 연말에 상복이 터졌다.

'경북 투자유치 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한국관광의 별' 선정,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 농업연구 최우수기관, 치매극복사업 성과대회 최우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최우수, 정신건강증진사업 발전대회 최우수, 중소기업 육성정책 평가 우수기관, 평생교육 추진정책 평가 우수상, 저탄소 생활실현평가 우수기관,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부문 우수기관,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저출산 극복사업 평가장려 등 12월에만 1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중앙부처의 평가에서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과 (사)고령군 관광협의회 활동을 통해 한국관광의 별 선정, 지자체 최초 국제관광대상, 한국국제관광전 최우수 마케팅상, 관광마케팅 트래블라이 어워즈를 수상했으며, 대가야

희망플러스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위기기구의 발굴과 지원강화로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한, 평가에서는 투자유치 활성화 노력과 중소기업, 전통시장 지원시책을 통해 투자유치대상 최우수상, 중소기업 육성정책 우수상, 전통시장 평가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보건 분야에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발전대회 최우수상, 치매극복사업 성과대회 최우수상,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최우수상, 보건진료소 운영 성과대회 우수기관상,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상, 저출산극복사업 평가 장려상 등 6개의 상을 무더기로 수상했다.

또한, 위생 분야에서는 식품위생관리사업평가 우수기관, 공공위생관리사업 자체평가 우수기관, 고령군소비식품위생감시원 유공표창을 받았으며, 행정 분야에서는 열린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계약원가 운영평가 우수기관, 평생교육 추진정책 평가 우수상, 저탄소 생활실현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연구 최우수기관(현장연구 최우수센터)에 선정됐다.

2017년 고령군은 각 분야별 고된 수상과 외부기관의 긍정적 평가를 통해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꿈이 현실로 이뤄져 가는 한 해였다. 2018년은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고령'을 기대해 본다.

군위군, '명품교육도시' 발돋움

군위고등학교 3년 연속 서울대 합격생 배출 쾌거

지난 22일 2018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결과에서 군위고 남화정 학생이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최종 합격하면서, 군위고등학교에서 3년 연속으로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군위고 신대홍 학생이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에 수석 합격하는 등 군위고 출신의 학생이 연말에 명문대에 합격하는 큰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한 남화정 학생은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군위인재양성원에 계속 수강하면서 학업을 이어왔다.

최근 군위지역은 해마다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입학학생 정원 채우기도 급급한 실정이며, 현재 고등학교 2개교에 전체 학생수가 370여명에 불과하며, 그 중 고3재학생이 140명도 안되는 현실에서 3년 연속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입시결과는 농촌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지난 1999년에 설립한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장학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는 공립학원인 군위인재양성원을 설립해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대도시와 같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교육문제도 더 이상 대도시로 떠나는 일이 없이 지역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군위군과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방과후학교 및 보충수업비 지원, 기숙사비 전액 지원, 친환경급식비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서울 군위학사를 운영하고 수도권대학에서 지역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또, 대구·경북지역 6개 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향토생활관을 지원, 지역출신 학생들의 기숙사 입학 편의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김영만 이사장은 "그 동안 교육지원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가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3년 연속 서울대 합격은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군위군 전체의 희망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국에서 교육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 '명품교육도시 군위', 그리고 지성과 인성이 겸비한 창조적인 미래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밝혔다.



성주군,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지정

성주군은 '성주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으며, 이번 추가 지정된 장소는 성주공용버스정류장, 경일교동(우) 차고지 등 기존 2개소에서 성밖공원, 실

내체육관, 성주전문시장, 군청사 부설주차장, 성주군보건소, 성주문화예술회관, 성주읍행정복지센터, 각 면사무소 주차장 등을 신규 추가 지정해 18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외부기온 5~27℃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외부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와 소방차, 급급차, 냉장차, 청소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북대, 1월 16일 신년음악회



지난 1월 13일 경북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경북대학교 신년음악회'

국악·클래식공연 한자리서 지역민 함께하는 문화행사 경북대 대강당서 전석무료

경북대학교가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음악회로 지역민들을 찾아간다.

경북대학교는 2018년 1월 16일 오후 7시 30분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2018 경북대학교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11회째를 맞이하

는 신년음악회는 해마다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경북대학교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신년음악회는 윤명구의 지휘로 국악인 남상일과 김수경, 동래학춤 전수조교 이광호 등이 출연하고, 박지운의 지휘로 소프라노 유소영, 테너 진성원, 안무자 최두혁, 피아니스트 정현숙과 서아름 등이 출연해 국악과 클래식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악인 남상일은 '사철가', '장타령', '고장난 벽시계' 등 대중가요 명곡을 그의 목소리

로 재해석해 들려 준다. 소프라노 유소영과 테너 진성원은 이탈리아 가곡 'Il Bacio(입맞춤)'와 한국가곡 박연폭포를 각각 선사하며, 현대무용에서는 최두혁이 안무를 맡아 라벨의 Bolero(볼레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춤, 피아노듀오 및 오케스트라 연주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람 신청은 2018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북대학교 홈페이지(www.knu.ac.kr)에서 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관람자를 선정, 입장권을 무료로 배부한다. 김용구 기자

경북교육청, 학생 생활지도 최우수교 9개 선정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현장중심 학교 폭력 근절 앞장

경북교육청은 27일 2017학년도 학생 생활지도 최우수교 9개교(초 3교, 중, 3교, 고 3교)에 교육감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학생 생활지도 최우수교는 모든 학교의 생활지도 실적(증빙서류 포함)을 받아서 지역교육지원청과 생활지도위원장과 합동으로 정량평가(70점)와 정성평가(30점) 자료를 바탕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해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를 도교육청으로 추천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초 23개교, 중 23개교, 고 23개교의 실적을 심사위원을 구성해 2차 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평가는 생활지도 계획 수립, 학교폭력예방

과 대책, 학생 자치활동, 교복 관련, 학부모 지원, 봉사활동, 1만 동아리 활동, 안전사고 예방, 학업중단과 학생 상담, 성폭력 및 학생 자살예방 교육 영역 실적 및 특색 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구미 선산초, 영천중앙초, 울진 부구초, 구미 금오중, 포항 장흥중, 칠곡 북삼중, 김천 성의고, 포항흥해공업고, 의성여자고등학교로 생활지도 최우수교는 모든 교원들에게 집단 실적점이 부여된다.

권혜경 학생생활과장은 "단위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지도 주요 사항을 점검·평가함으로써 2018학년도 학생 생활지도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 우수한 사업을 모든 학교에 공유하고 우수한 실적을 추진한 학교의 사기를 진작시켜 현장 중심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따뜻한 심성의 미래 바리스타 장애학생들!

구미 상모고 'cafe 꿈드림' 운영수익금 50만원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구미 상모고등학교 'Cafe꿈드림'이 지난 26일, 카페 운영수익금 50만원을 '희망2018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바리스타 교육 실습중인 장애학생들이 교직원들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커피값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다.

김장섭 교장은 "주변 소외 이웃들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심성을 지닌 우리 학생들이

무척 자랑스럽다. 우리 학생들의 바램대로 성금을 요긴하게 써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cafe 꿈드림'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카페 운영수익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으며 이번 성금을 포함, 그 누적기부액은 500만원이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눔으로 행복함 경북' 희망2018나눔캠페인을 전개한다. 모금목표액은 145억원으로 1억 4,500만원이 되면 때마다 사랑의 온도는 1도씩 상승하게 된다. 기부참여 문의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전화 053-980-7800)으로 하면 된다.

이은진 기자



구미 상모고등학교 'Cafe' 꿈드림 학생들과 김현정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맨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한의대 전명남 교수, '마르퀴즈' 등재

41권 저역서·연구보고서 49편 우수논문 발표 등 2017-2018년판에 선정

대구한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명남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 2017-2018년판에 등재자로 선정됐다.

전명남(사진) 교수는 학습상담과 교육상담, 청소년 및 부부가족 상담 분야의 전문가로 '중학교 기초학력미달 학생으로 살아가기에



대외활동 등 인정받아 선정됐다. 전명남 교수는 경북대에서 교육 및 상담심

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연구재단에서 박사후 과정(post-doc)을 거쳐 2011년부터 대구한의대에 재직하면서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개발부장과 2014년 대구한의대 조부상 연구기금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영국 국제인명센터(IBC),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로 1899년 발간을 시작해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과학·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남긴 인물 5만여명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한다.

김진희 기자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부모위원 합동 연수

달성교육지원청, 사례중심 강의 위탁업체 선정과정 효과적 방법

달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오후 3시 대구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부모위원 합동 연수를 실시했다.

달성교육지원청을 비롯한 4개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부모위원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방과후학교 개인위탁강사 및 위탁업체 선정시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역할과 이해를

돕고자 실시됐다. 이번 연수의 강의를 맡은 대구경동초등학교 정영림 교사는 '방과후학교 개인위탁강사 및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방법 모색'을 주제로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어려워하는 선정과정에 대해 다양한 사례중심 강의로 학부모위원의 이해를 높여주었다.

특히,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역할,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주요 개정 내용, 개인위탁강사 및 위탁업체 선정시 유의점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강의 후에도 학부모위원들은 입찰을 통한 업

제위탁 선정 방법, 프로그램 추가 선정 등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 날 참석한 대구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김진선에 사무관은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부모위원들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이 더욱 청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부탁했다. 조여은 기자



도청이전 신도시 신설교 교명 '경북일고' 확정

경북교육청은 도청이전 신도시 내 신설 고등학교 교명이 '경북일고등학교'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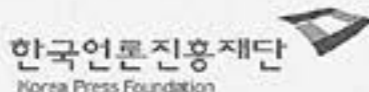
2018년 3월 1일 개교하는 경북일고등학교는 신도시에 최초로 들어서는 고등학교이니 만큼 교명 선정에 있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 선정 과정에서 많은 우려폭절도 겪었다. 당초 교육청에서는 경북제일고등학교로 선정했으나, 인근 30km 이내에 위치한 제

일고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측에서 위계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접수돼 경북일고등학교로 최종 변경 선정해 임박예고를 거쳤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신도시에 첫 번째로 설립되는 고등학교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우수한 학교 시설 및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라는 뜻으로 알고 개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는 행복공동체!

'다름'은 '틀림'이 아닌 '다양함'이란 긍정의 의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